

공단-양양군, 철도부지 활용 MOU체결

- 시변리 주변 오토캠핑장 조성키로 -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지난 3월 28일 양양군과 관내 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체결은 한국전쟁 직후 철거되었으나 향후 동해북부선 건설시 정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될 예정인 3개소(송암리, 시변리 및 지경리 일원) 132,318㎡를 대상으로 하며, 이중 시변리 소재 인근 정차장 부지는 4월부터 죽도해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토캠핑장 조성은 공단이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 뒤 사용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양양군은 기반시설(오수관로 및 주차장 등)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본부는 앞으로도 관내 철도부지(국유재산)의 체계적 활용을 통한 가치증대와 더불어 지자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본부 오창환 기자)



창원시 석전동 철도 토성구간 교량화 본격 착공

- 단절된 석전동 교량화로 30년 주민숙원사업 해결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경전선복선전철화사업 중 마산역~충리역간 연장 6.194 km 구간을 신설선으로 운행선을 변경하여 창원시 석전동 토성구간 교량화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석전동 삼각지 철도 토성구간은 도시양분 및 지역단절 등 주민생활불편으로 '2003년 공사착공시 부터 수십 차례 교량화 요구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민원해소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량화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지나해 12월 총사업비를 승인받아 30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다.

교량구조물 공사를 위해 임시 가설교량을 설치하여 금번 3월 16일 석전터널을 거쳐 충리역까지 신설선으로 운행선을 변경하여 열차운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교량공사를 마무리 후 영업시운전을 거쳐 금년12월 마산역~진주역간을 개통하여 KTX열차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태균 본부장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교량하부는 창원시와 협의를 거쳐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 유휴부지 민간 활용 설명회 개최

- 영남본부, 활용가치 높은 12개소 8만8천여㎡ 대상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대구광역시, 창원시 등 영남지역에 있는 철도유휴부지 중 토지활용가치가 높은 철도부지(12개소, 105필지, 88,027㎡)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고속철도건설로 인한 부채상환 재원마련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9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관내 유휴부지 조사를 통해 염선된 대상 토지는 면적이 1,000㎡ 이상인 동시에 활용성과 접근성이 뛰어나 주차장, 물치장, 태양광발전, 물류창고 및 인도어 골프연습장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지역으로서 대구광역시(1개소 52필지, 23,497㎡), 창원시(1개소 4필지, 20,183㎡), 김해시(1개소 2필지, 24,508㎡), 진주시(1개소 4필지, 2,637㎡), 밀양시(1개소 1필지, 1,000㎡), 사천시(1개소, 1필지, 2,582㎡), 울주군(1개소 1필지, 1,000㎡), 포항시(1개소 1필지, 1,370㎡), 영천시(1개소 1필지, 1,237㎡), 경산시(1개소 26필지, 6,620㎡), 경주시(2개소 12필지, 3,393㎡) 등 총 12개소 105필지 88,027㎡이며, 대상 부지에 관한 세부자료는 지난 2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kr.or.kr - 공지/행사)에 공개되었다.

영남본부는 적극적인 현장설명회 및 개별지역 활용의 one-stop 서비스를 위하여 지난 22일(목) 마케팅 T/F팀을 구성·운영 중이며, 희망자가 대상부지 현장설명을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안내도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남본부(재산관리운영부, ☎051-664-5401, 5453) 또는 본사(자산개발사업처 ☎042-607-4222, 4225)로 문의하면 된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 설명회 공개대상 토지(규모별 개소)

지역별	계	1천㎡ 초과 ~5천㎡이하	5천㎡ 초과
대구광역시	1		1
창원시	1		1
김해시	1		1
진주시	1	1	
밀양시	1	1	
사천시	1	1	
울주군	1	1	
포항시	1	1	
영천시	1	1	
경산시	1		1
경주시	2	2	
합계(개소)	12	8	4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이용율 극히 저조

- '11년 열차운행 횟수 호남권 주0회, 영남권 주2.3회, 중부권 주12회 -

공단은 거점별 연계수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건설한 호남·영남·중부권 내륙 화물기지의 인입철도를 이용한 화물수송실적이 당초 계획에 비해 극히 저조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건설 3곳에는 모두 1,67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나, 2011년도 열차운행 실적은 보면 호남권기지 인입철도는 화물열차 운행실적이 없었으며, 영남권 주2.3회(계획대비 6.6%), 중부권 주12회(계획대비 57%) 수준으로 극히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011년도에 화물열차로 운송된 물동량도 호남권은 전혀 없고, 영남권은 컨테이너 8천TEU로 계획대비 18%, 중부권은 컨테이너 1만1천TEU로 계획대비 16%에 불과하였다.

*TEU : 20ft 크기의 컨테이너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계획당시 철도를 이용한 화물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였고, 구체적 화물물동량과 수송패턴·철도수송 적합여부 등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사업단지 인입철도 건설계획시 철도수송대상 물동량과 화물의 출발·목적지 및 열차운행 계획(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인입철도 건설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참고] 2011년도 인입철도를 통한 운행횟수 및 운송 물동량 현황

구 분	인입철도 운행횟수			인입철도 이용 운송물동량(천TEU)		
	예측	실적	비율	예측	실적	비율
호남권	주 42회	주 0회 (년2회)	0%	142	0.04	0.03%
영남권	주 35회	주 2.3회	6.6%	45	8	17.8%
중부권	주 21회	주 12회	57.1%	69	11	15.9%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 안전체험장 건립

- 철도건설 현장 위험상황 완벽 체험 -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지난 3월 20일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원주~제천복선전철사업 2공구 현장에서 안전체험장을 건립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나섰다.

안전체험장은 약400평의 부지에 110평 규모로 건립되어 1층은 터널, 안전장구 및 기타 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교량 및 가설 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억3천5백만원의 공사비가 들었다.

김재규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체험교육장을 건립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당 현장뿐만 아니라 타 사업의 철도건설 현장에서도 활용하여 강원본부 소관 전 현장의 무재해 달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본부 성대성 기자)



기술본부 『KR 키다리 아저씨』 희망의 불빛 가꾸기 사업 전개



기술본부(본부장 최강운)는 '12년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8일 KR소년단 및 조손가정 청소년 총 12명을 대상으로 『KR 키다리 아저씨』 희망의 불빛 가꾸기 사업을 전

개하였다. 『희망의 불빛 가꾸기』 사업은 본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보다 밝고 쾌적한 공부방을 가꾸어 소외계층 아동들이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 불우한 청소년기를 맞고 있는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보살핌 속에,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희망의 불빛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조그마한 보탬을 주기 위함이다.

(기술본부 장동일 기자)

계시판

주요뉴스 (3. 22 ~ 3. 29)

- KTX 제2사업자 도입은 '순리' (아시아경제 3. 22)
- "남부내륙철도 빨리 좀 만듭시다" (서울신문 3. 22)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정책 고객'도 참여 (서울신문 3. 22)
- KTX는 더 빠르게, 도심교통은 더 쾌적하게 (충청투데이 3. 22)
- 공기업 빛 543조... 갈수록 '눈덩이' (세계일보 3. 22)
- 대기업,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못한다 (서울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 22)
- 정항선 개량 2단계 설계착수(대전일보 3. 23)
- 내륙선 개발 시범사업 하반기 추진(동아일보 3. 23)
- 2년이나...KTX·지하철 '가짜 부품' 달고 달렸다(서울신문 3. 23)
- KTX 또...동대구역 지나친 뒤 300m 역주행(중앙일보 3. 23)
- 국회 향하는 철도(서울신문 3. 23)
- '674억 짜리' 내륙철도화물기지 영타리 수요예측에 예산만 낭비 (서울신문 3. 26)
- 산업단지 인입철도 실적 저조... 건설 역제(파이낸셜 3. 26)
- 중부권 등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운행실적 '미미'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중앙일보 3. 26)
- 서울서 KTX타면 2시간 57분만에 도착... "여수, 멀지 않아요" (동아일보 3. 26)
- 경춘선 전기 끊겨 2시간 운행 중단(경인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3. 26)
- 국토해양부 'KTX 정읍역사 원안추진 지시' (한국일보, 서울신문, 광주일보 3. 26)
- 김포 '지하 경전철' 마침내 내년 첫 삽(조선일보 3. 26)
- 충북선 '북청구역' 신설 가능성 크다(조선일보 3. 27)
- 배기운-최기진 'KTX 나주 경유' 공방전(광명일보 3. 27)
- 동대구역 옆에 복합환승센터 건립한다(조선일보 3. 27)
- 철도 운행사고 많을수록 사용자 불만(서울신문 3. 28)
- 김포도시철도 '전 구간 지하화' 최종 승인(조선일보 3. 28)
- 호남KTX 노선 총선후 확정(무등일보 3. 28)
- 철도유휴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강원일보 3. 28)
- 한국철도시설공단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충청투데이 3. 29)
- 철도공단, 유휴부지 개발 설명회(중앙일보 3. 29)
- 철도부지 활용 업무협약(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3. 29)
- 철도 유휴부지 활용 설명회(무등일보, 전남일보 3. 29)
- 김포 도시철도 '지하 경전철'로 확정(중앙일보 3. 29)
- 여수엑스포 기간 KTX 늘린다(동아일보 3. 29)
- 시민단체 연대 'GTX 조기추진' 촉구(경기일보 3. 29)

경조사

- 수도권본부 북부건설처 정기추차장 모친상 - 발인: 2012년 3월 27일(화)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박재환 전문위원 부친상 - 발인: 2012년 3월 31일(토)
- 수도권본부 시설운영처 유재용차장 모친상 - 발인: 2012년 3월 31일(토)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오세범사원 조모상 - 발인: 2012년 3월 31일(토)
- 충청본부 건축/설비PM부 최광준과장 결혼 - 일시: 2012년 4월 8일(일) 15:00 - 장소: 대전 둔산사학연금회관 웨딩홀 2층